

## 일본, 인도네시아 수도권 인프라 정비 추진

-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수도권 개발을 위한 ‘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’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주활동 전개
- 인도네시아에서의 인프라 정비는 투자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

### □ 인도네시아 수도권 정비 계획

-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9일에 자카르타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합의하고,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엔이 소요되는 ‘자카르타 수도권 투자촉진 특별지역’ 구상을 추진할 계획
- 합의된 투자계획은 교통 혼잡 대책으로 도로 정비, 철도 건설, 전력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 정비 등이 중심
  - '13년 말까지 착수할 중요 18 사업을 선정,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

\* 구체적인 인프라 개발 내용

1. 공업단지의 개선: 자카르타 동방공업지역의 도로 개선, 자카르타 신국제항 정비
2. 도시환경 정비: 도시고속철도 남북선 및 동서선 정비, 서자와주 폐기물처리시설 건설
3. 복수의 게이트웨이 확보: 수카르노·하타 공항 확장
4. 저탄소에너지 개발: 인도라마유 화력발전소의 건설, 라자만달라 수력발전소 개발

자료: 일본경제신문(2012.10.9.)에서 정리

- 스미토모상사, 미쓰비시중공업은 공동으로 총 사업비 210억 엔의 간선 철도 전철화·보수 사업을 수주

- 철도 운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으로 현재 수도권 노선과 지방 장거리 열차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선 철도를 복선으로 분리
- 동 프로젝트는 일본식 철도신호시스템을 처음 수출하는 사례로, 2016년 말 완성을 목표로 금년에 착공 예정

\* 변전소 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장비는 일본제 기기를 사용

## □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일체화된 인프라 수출

- 동 개발 사업은 인프라 안전의 계획 단계부터 건설, 보수 및 점검까지 포괄하는 ‘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’이 될 것임
-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장관급이 신흥국을 방문하여 인프라 수주를 직접 협상하고 있는데 반해, 일본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수주 경쟁 면에서 취약했다고 지적을 받아 왔음
-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에 ‘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’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국제협력은행(JBIC), 국제협력기구(JICA) 등 정부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
- 일본의 ‘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’ 사례는 베트남의 원전 수출 건설이 약 1조 엔, 인도의 ‘뉴델리·뭄바이 간 산업대동맥 구상’에 ODA 약 9,000억 엔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임
- \* 현재 미얀마의 더웨이 항구 개발을 계획 중
- 일본은 과거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 개발을 추진,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음
- 도시고속철도 남북선의 정비, 자와 섬과 스마트라 섬을 연결시키는 송전선 정비 등 3개 프로젝트를 엔 차관으로 실시 예정

- 홍수 대책으로서 자카르타 근교 플루이트 배수장의 개수를 무상으로 총 약 950억 엔을 지원

## □ 인프라 개발이 현지 일본기업의 경영에 도움

-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사업비의 약 1조 엔에 대해 외국기업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, 일본기업도 동 계획에 참여할 예정
- 사업성 조사에는 미쓰비시상사, 히타치제작소, 수도고속도로회사, 도쿄메트로 등 11개 인프라 관련기업이 참여 예정
-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 개정이나 세관 절차 등 투자조건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
-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지만, 아직 인프라 정비가 미숙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일본기업들의 도시개발 참여기회 확대는 경영실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- 자카르타 근교에는 도요타자동차 등 많은 일본기업들이 입주한 공업단지가 있어 교통 혼잡이 해소되면 물류생산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

## □ 시사점

- 신흥성장 시장인 동남아시아,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거나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언급

- 따라서 우리는 경제협력 대상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전략 및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
-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중요한 무역 상대국가임
  - 2011년 우리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135.6억 달러로 전년대비 52.3% 증가하였고 수입은 23.1% 증가한 172.2억 달러
  -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환경의 개선과 단순한 인프라 정비 수준에 그치지 않은 경제협력 모색이 필요함
-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제3국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수주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10.9/10)